

화순 키즈라라, 어린이직업체험 테마파크 '인기'



화순군 도곡면에 있는 어린이 직업체험 테마파크인 '키즈라라(대표이사 문팔갑)'가 지난 3월 개관한 이후 소방관, 유튜버, 의사 등 직업체험을 하려는 어린이들로부터 인기가 높다.



소방관 체험을 하고 있는 어린이들.

“축구선수가 꿈이었는데, 나쁜 도둑을 잡는 경찰관도 되고 싶어요.”
 지난 1일 오전 화순군 도곡면(온천1길 35)에 있는 어린이 직업체험 테마파크 '키즈라라'. 경찰 정복을 차려입은 강소준(11)군이 노란색 방범봉을 흔들며 이렇게 말했다. 강 군은 동료 어린이 경찰들과 함께 도난당한 보물을 찾고 있었다. 키즈라라 '파이어 에너지 존'의 경찰관 체험으로 애니메이션 '꼬마히어로 슈퍼잭(제작사 오콘)' 악당인 레오박사가 보물을 훔쳐 숨겨놨다는 상황극이다.
 아이들은 단서를 찾기 위해 키즈라라 구석구석을 돌아다녔다. '은행 체험관' 구석에서 도난 당한 보물을 발견한 아이들은 다시 경찰서로 돌아가 경찰 체험 교육을 마저 들었다.

나주초에서 온 강군은 “축구를 좋아해 운동선수가 꿈이다. 손흥민처럼 EPL리그에 진출하는 축구선수가 되고 싶다”며 “오늘 체험을 해보니 경찰관도 되고 싶다. 유치장이 무섭긴 했는데 그래도 나쁜 사람들을 잡는게 멋있다”고 말했다.
 이날 키즈라라에서 총 4차례 진행된 진로체험 프로그램에는 나주초 외 5개 학교에서 총 500명의 학생들이 찾았다.
 나주 송현어린이집 이성자(51) 원장은 “농촌 지역은 여건상 직업체험이 힘든데 전문기관에서 쉽고 재밌게 교육받을 수 있어서 반응이 좋다”며 “직업 체험은 아이들 정서발달과 진로설정에 도움이 된다. 아이들도 좋아하고 학부모들이 선호해 정기적으로 찾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키즈라라는 지난 3월10일 화순 폐광지

소방관·유튜버·의사 등 체험 30여 개 직업체험 공간 조성 영유아체험관도 발길 이어져

화폐 라라페이로 매장서 사용 교육·문화·쉼터공간 '활용' 정부, 폐광지역 지원 차 조성

역에 문을 열었다. 키즈라라는 2012년 폐광으로 위축된 화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제2단계 폐광지역 투자계획에 따라 한국광해관리공단, 화순군, 강원랜드가 설립됐다. 광해관리공단이 250억원, 강원랜드가 200억원을 출자하고 화순군이 205억원의 부지를 제공했다.
 설립 초기 화순리조트로 출발한 이 법인은 관광·숙박사업을 진행하다 수익성 문제로 세 차례 사업을 중단·변경한 끝에 어린이테마파크를 추진하게 됐다.
 화순 도곡 온천관광지구에 있는 키즈라라는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8128㎡(2459평) 규모로 건립됐다. 이곳에는 소방관, 유튜버, 의사 등 30여 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어린이 직업 체험관'과 꼬마히어로 슈퍼잭과 함께 놀 수 있는 '영유



키즈카페를 찾은 학생들이 은행원 체험을 하고 있다.

아 체험관(키즈카페)',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키즈라라 잔디광장(2만4000㎡)을 비롯해 푸드코트, 오리엔테이션홀 등 편의시설이 마련돼 있다.
 어린이직업체험관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조성된 가상의 도시에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로 교육과 재미가 결합된 에듀테인먼트 테마파크로 조성됐다. 쿠키·치즈 등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임실치즈농협 치즈·소시지 공방'과 소방서·승무원 교육센터도 인기코스다.
 '영유아체험관(윌리코키즈카페)'는 1100㎡(330평)에 체험 구조물과 시설들이 들어서 있다. 꼬마히어로 슈퍼잭을 모티브로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이 된 듯한 느낌을 준다. 미디어아트(시네마)공간을 비롯해 볼풀장, 정글집, 트랙 등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됐다.
 키즈라라에는 푸드코트, 오리엔테이션홀 등 편의시설 등이 조성됐다.
 직업처럼 급여도 받는다. 별도로 마련된 화폐인 '라라페이'를 사용한다. 체험 때마다 지불하고 급여처럼 받을 수 있다.
 라라페이는 한 체험당 5~10라라페이를 얻을 수 있다. 얻은 라라페이는 라면·음료 식품연구소, 치즈·소시지 공방 등 체험활동과 시설 내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문팔갑 키즈라라 대표이사는 “키즈라라는 화순군을 비롯해 광주·전남북 유아·초등생 가족을 위한 교육·문화·쉼터 공간이 될 것”이라며 “교육과 재미가 결합된 에듀테인먼트 테마파크인 키즈라라가 호남의 랜드마크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호남권 어린이체험·쉼터로 조성, 대표 관광 테마파크로 만들 것”

문팔갑 키즈라라 대표이사 어린이 직업체험 기회 제공 꿈과 희망주는 공간 조성도

“키즈라라는 화순을 비롯해 광주, 전남 북 지역에 거주하는 아이들의 교육과 문화, 쉼터가 되어 호남관광의 대표적인 거점 될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문팔갑 키즈라라 대표는 “취임 후 수많은 난제를 앞에서 좌절하기보다 그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해 전 직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발로 뛰었다”며 “그만

꿈 키즈라라를 찾는 방문객들과 어린이들이 더욱 귀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지난해 8월 어린이 직업체험 테마파크인 쉼터키즈라라 제4대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코로나19 등 여파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난 3월 키즈라라 개관을 위해 온 힘을 쏟았다.
 문 대표는 “10년만에 키즈라라가 어린이직업체험 테마파크 사업의 본격 시작을 알리게 됐다”며 “힘들게 개관한 만큼 어린이들이 미래를 꿈꾸고 장래희망을 갖게 하는데 역량을 쏟아 붓겠다”고 했다.
 문 대표는 키즈라라의 장점으로 ‘체험



문팔갑 대표이사

주교육제제 속에서 자랄 수밖에 없는 어린이들에게 키즈라라의 실감나는 다양한 직업체험을 통해 직업에 대한 정보를 얻

을 줘왔다.
 문대표는 “어린이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키즈라라의 체험관들은 아이들에 장래희망을 갖게 하는데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며 “한국적 입시위
 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동적인 품성과 힘을 길러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넓게 펼쳐진 푸른 잔디광장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아이들이 신나게 뛰놀고 어린이직업체험관에서 직업 체험을 하며 미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꿈을 더 크게 키워주는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며 “넓은 부지와 잔디광장을 이용한 이벤트 사업을 하고 지역 업체와 공동마케팅을 활성화 하는 등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노력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키즈라라가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의 장이 되는 국내 최고 어린이

직업체험 테마파크로 성장하고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키워주는 공간이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며 “모든 역량을 최대한 쏟아부어 키즈라라의 밝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호남탄좌 능성탄광 소장, 제2~4대 화순군의회 의원을 역임했고 제4대 화순군의회 전반기 의장을 지냈다. 이와 함께 평동자문회의 화순군협의회장, 광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본부장, 박주선 국회의원실 수석 비서관, 20대 대통령 취임 준비위원회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송민섭 기자